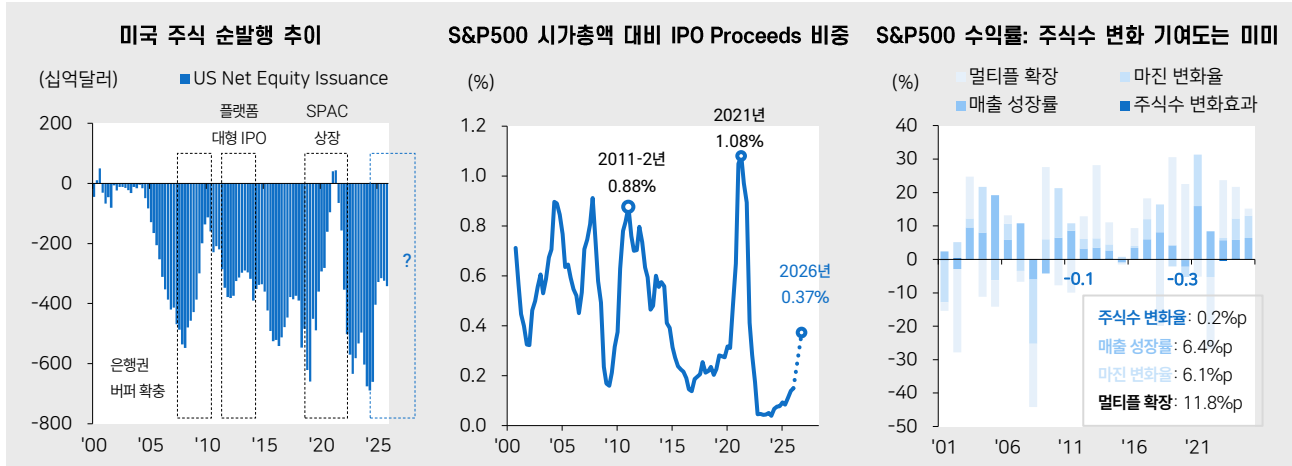


오늘의 차트 박보경 연구원

Mega IPO 주식물량 공급충격 점검



주: Net Equity Issuance = Issuance – Buybacks – M&A Retirements
 자료: Federal Reserve(F.103),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지난주 SpaceX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S-1을 공시하며 Mega IPO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주식 순발행 감소가 증시 지지 요인으로 작용해온 만큼 IPO가 유발하는 Share Count Boost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paceX, OpenAI, Anthropic의 예상 시가총액 합산은 약 2.5~3.75조 달러로, S&P500 시가총액 대비 5.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IPO 호황기였던 2012년(플랫폼), 2021년(SPAC) IPO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산 비중 0.75%, 0.71%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26년 예상되는 IPO의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시가총액 전액이 신주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IPO 공모금액은 3사 합산 약 2,000억 달러이다. 이는 S&P500 시가총액 대비 0.37%(5월 26일 기준)로 2012년(0.88%), 2021년(1.08%) 대비 오히려 적은 수준이다. 절대적인 공모금액은 유사하나, S&P500의 시가총액이 2배 가까이 상승한 영향이다.

한편 S&P500 수익률을 매출성장률, 마진개선율, 주식수변동효과, 멀티플 확장으로 분해 시 2012년, 2021년 주식수변동 기여는 -0.1%p, -0.3%p이었다. 당시 마진개선, 기업 Buyback,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물량부담을 흡수하며 수익률은 19.4%, 26.9%를 기록했다. 즉 공급부담이 추세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익모멘텀 둔화, 멀티플 압축, Buyback 감소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형 IPO 이후 패시브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공모금액 기준 공급부담은 과거대비 낮은 수준이며, Buyback 역시 빅테크 CapEx 투자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IPO 흐름이 구조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